
 ◈ 政府 施策 ◈

工業發展基金지원 대폭 증액

- 내년 3275억원 확정, 試製品개발사업 역점 -

중소기업들의 시제품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지원되는 공업발전기금의 내년도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내년도 공업발전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5.2% 늘어난 3275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가 발표한 96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융자지원규모 3275억원 중 기술개발사업에 25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통산부가 고시한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등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제품개발사업에 올해보다 66.7% 증가한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정밀전자, 신소재, 항공 등 첨단산업 부문의 기술개발에 올해와 동일 규모인 5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발·설비자동화 등 생산성향상 자금으로 40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염색·도금·피혁 등 산업공해 유발업체의 공해방지시설개체자금으로 280억원, 패션업계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5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한편 통산부는 기업의 자금수요사정 등을 고려해 올해 공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시제품개발사업에 100억원, 패션의류 및 신발의 자기상표개발사업에 40억원을 각각 추가 지원키로 했다.

공업발전기금은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으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는데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첨단제품은 업체당 10억원, 시제품은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융자금리는 연 6.5%, 융자기간은 2년거치 포함 5년 이내이다.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자금은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융자금리는 연 7.0%, 융자기간은 3년 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이다.

• 96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단위:백만원)

항 목	95 변경계획	96 계획	증 감
1. 기술개발	184,500	254,500	70,000
○ 시제품개발	130,000	200,000	70,000
○ 첨단산업기술개발	54,500	54,500	-
2. 생산향상 및 高附加 價値化	64,000	73,000	9,000
○ 생산성향상	35,000	40,000	5,000
○ 산업공해시설 개체	20,000	28,000	8,000
○ 高附加價値化	9,000	5,000	△4,000

電氣機器 기술개발 우수과제 선정

- 通産部, 총 51개중 우수과제 12개 선정 -

정부의 중전기, 계측기기, 조명기기 등 전기기기류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시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산업부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전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업계 자체자금등을 사용해 개발된 51개 전기기기 기술개발과제중 12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개발성과 발표회를 갖는 한편 통산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했다.

51개 개발과제의 투자비를 보면 전체 392억원중 한전지원분이 339억원이고 기타 53억원은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자금 및 자체자금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개발완료된 기술개발과제 중 중전기 분야에서는 LG전선에서 개발한 '전철형 고분자 장간애자 설계 및 제조기술개발' 등 7개 과제는 특허출원 중에 있고 10개 과제는 특허출원 준비중에 있는 등 고도기술 개발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조명부문은 외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내수시장 확보를 겨냥한 많은 기술개발 성과를 올렸다. 미미전자에서 개발한 '매입형 박형등기구'는 슬림형 형광등 보급에 대비한 등기구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동명전기에서 개발한 '할로겐램프 및 생산설비'는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생산설비를 자체개발해 기술자립을 이루는 쾌거를 올렸다.

통산부는 전기기기 개발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둬에 따라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발제품의 보급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자본재 전략품목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번 기술개발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내년 기준 3억1200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와 8300만달러의 수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산부는 전기기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2천년대를 향한 전기기기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이미 확보된 5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외에 1천억원의 기술개발기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다음과 같다.

△무공극형 피뢰기용 산화아연 피뢰기 소자개발(삼흥중전기) △배전용 Polymer Dead End Insulator개발(평일산업) △배전선로용 SF6 가스절연 Recloser개발(진광) △발전소용 대용량 GTO 인버터설계 및 제조기술개발(한전) △공장자동화를 위한 200V/2KVA 선형 서보모터 및 제어기 개발(효성중공업) △BLDC 모터부착형 50W급 마크네트펌프 개발(성신, 청석엔지니어링) △전기집진기용 고압정류장치 개발(국제전기) △다중차폐 방식을 이용한 내뢰 전원장치개발(신아전기공업) △고효율 자기식 안정기(제일조명공업) △매입형 박형 등기구 개발(미미전자) △상용전압용 할로겐램프 및 생산설비 개발(동명전기) △電磁유량계(정엔지니어링).

산업지원 관련 基金 · 資金 개편

— 通産部, 내년부터 인프라지원 확충 運用방침 —

내년부터 현행 산업지원관련 9개 기금·자금이 산업기술개발, 산업기반조성, 중소기업지원등 기능별로 3개 기금 및 자금으로 개편된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산업지원관련 기금·자금은 그 종류가 다양해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9개 기금·자금을 3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운용도 WTO체제의 출범으로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기술·물류·환경·입지·표준화 등 산업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중 시제품·첨단기술개발자금 등 기술개발관련 자금을 산업기술자금으로 통합해 기술인력, 연구시설 등 기술기반조성 및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유통근대화자금 및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은 기존의 공업발전기금에 흡수·통합해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 기술개발분야 이외의 산업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환경·입지 등 산업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 등 중소기업관련 기금·자금도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자금의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러한 산업지원관련 각종 기금·자금의 기능별 통폐합으로 자금지원체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자금의 통합관리로 유사자금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분석을 토대로 연계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호황기에는 창업지원, 불황기에는 구조조정 등에 중점지원하는 방식으로 동일 기금·자금 내에서 경기상황에 따라 주요사업간에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지원용 기금·자금 개편안

현 행(9개)	개 편 안(3개)
1.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 1. 산업기술자금
2.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3. 공업발전기금 ○ 시제품·첨단기술개발 ○ 생산성향상·환경부문	
4. 유통근대화자금	→ 2. 산업기반기금
5.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 3. 중소기업진흥기금
6. 중소기업진흥기금	
7.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8.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9. 농공단지 입주기업자금	

「부품 共用化」순조

- 총 87개품목...「추진위」구성작업 활기 -

정부의 부품공용화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통산산업부는 부품·소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부품공용화사업은 가전제품·자동차부품 등 총 16개품목에서 87개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공용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세탁기·냉장고 등 5개품목의 부품을 공용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영상기기연구조합등 8개 품목의 관련단체는 자체적으로 공용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아이템 발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분야는 컴퓨터·케이블TV·통신기기·영상기기·음향기기·의료-계측기기·충전기기·조명기기 등을 중심으로 공용화 사업을 전개하는데 컴퓨터의 경우 주변기기등 5개 품목, CATV는 컨버터등 3개 품목, 통신기기는 팩시밀리 등 5개 품목의 아이템을 확정했고 충전기기와 조명기기는 오는 11월 추진대상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5社를 중심으로 각각 1종의 공용화대상품목을 선정, 개발키로 했고 기계류는 엔진 등 5종의 상호구매품목을 선정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의 공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해 주는 한편 공용화추진품목의 단체규격 제정지원을 통한 상호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진청의 자본재 표준화기획단과 품목별 공용화추진회간의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 전기품질 고급화 대책 ◆

『정부가 확정한 전기품질 고급화 대책(“NEWS LETTER 전기공업” 제95-15호, '95. 8. 1 일자 관련기사 게재)의 구체적인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품질 고급화 대책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 2000년초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전기품질 고급화

	94실적	97	2001
- 정전시간(분/호.년)	116	37	14
- 전압유지율 (%)	99.2	99.5	99.9
- 주파수유지율 (%)	98.6	99.0	99.9

※ 93 일본사례 : 정전 39분, 전압유지 99.9, 주파수유지 99.8

○ 이를 위하여 기간중(95~2001) 9조3천억원을 투자

- 발전설비보강 (제어카드설치등 6개분야) : 1,117억원

- 송변전설비개선 (과학화장비확보등 13개분야) : 66,298억원

- 배전분야보강 (배전자동화건설등 9개분야) : 24,166억원
- 연구개발확대 (무정전 By-pass차 개선등 6개분야) : 1,228억원
- 금년중 「활선전기원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력양성
 - 교육기관 : 대한전기협회
 - 개소시기 : 95. 8. 중순
 - 활선전기원교육 : 연간 800명 수준 (금년중 400명 양성)

1. 설비보강계획

- 발전설비 개선 : 1,117억원
 - 발전소에 사원훈련용 모의제어반 설치하고 가상훈련
 - 15년이상 장기사용 노후제어설비를 최신 첨단제어설비로 교체 (화천, 영동등 11개발전소)
 - 장기사용 제어카드를 첨단전자제어카드로 대체
 - 각발전소의 주발전기에 자동전압조정장치를 설치
 - 발전소에 과학화장비(비파괴검사장비등)를 확보하여 예방정비 기능 강화
- 송·변전설비개선 : 66,298억원
 - 과학화장비(Thermovision등) 확보와 선로 항공순시강화
 - 고장다발 노후 송전선(66kV선로) 교체 및 부하분산용 송전선건설(11천km)
 - 변전설비 정비전문업체양성 및 첨단점검 장비 구입
 - 장기사용 노후배전반의 보호장치를 고신뢰 디지털계전기로 교체(433면)
 - 과부하변전소 분산용 변전소건설 (선산등 322개소)
 - 적정전압 유지를 위한 조상설비 건설 (3,650MVAR)
- 배전선로 보강 : 24,166억원
 - 차단기 원격 조작과 긴급복구시간 단축이 가능한 배전자동화 System 실증 선로 건설(강동지역 1개소)
 - 과부하 배전선로 분리용 선로 추가건설 3,721개
 - 사고다발 배전선로 지중화 (470km)

- 저전압 해소를 위하여 220V 승압 추진 (1,606천호)
- 상습 저전압수용가 보강작업 (2,745호)
- 배전장비현대화 (활선작업차, 설비진단차 등 399대)
- 사고다발 배전선로를 절연전선으로 교체 (27천km)
- 노후 66KV 선로를 22.9V 선로로 교체 (1,771km)

□ 기술개발 : 1,228억원

- 발전소의 자동주파수 조정기능 개선 연구
- 분산제어형 배전자동화 시스템 적용 연구
- 무정전 By-pass 케이블차 개선 연구
- 산업폐기물처리등 28개 전문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해외 훈련
- 전력계통 낙뢰감지 및 진로예측 시스템 개발
- 765kV 초고압 보호계전 방식연구등 6개분야 60개과제

2. 제도개선

- 각 지역단위로 전문단체 및 주요수용가가 참여하는 「전기품질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설치 : 각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및 전국 15개지사)
 - 구성 : 한전, 학계, 연구계, 언론계, 소비자단체등 10명 이내
 - 임무 : 전기품질 점검·평가와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건의
- 전국주요 수용가의 여론을 수렴하여 전기품질 개선방안 보완
 - 조사대상 : 전국의 주요 수용가 (총 5,200호)
 - 조사기간 : 95. 9~10월
- 전기품질점검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년중 상시점검 유지하는 방안 검토 추진
 - 점검기록확대 : 년 2회 (7월, 12월) → 년중 계속
 - ※ 배전자동화 시범설치중인 강동지점에 설치 평가후 확대
- 전기품질 고급화 촉진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 한전의 각지사, 지점 평가항목에 전기품질 고급화 추진실적 포함
 - 전기품질향상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다. 「활선전기원 교육기관」 설립

○ 배전선로 무정전 공사를 위하여 활선전기원 교육기관설립 운영

－ 담당기관 : 대한전기협회

－ 개소시기 : 95년 8월중순

－ 활선전기원 교육인원 : 연간 800명 수준(금년중 400명교육)

－ 투자비 지원 : 교육장 및 투자비 9억원 전액 한전지원

· 교육장 : 수색변전소 2000평

· 훈련용 시설확보 (전주, 변압기 등 설치) : 3억원

· 활선작업차(6대) 및 활선장구(6set) 등 : 6억원

※ 인정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노동부에 인가신청중

**◆ 중소기업자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자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 운용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135호, '95. 9. 23) 했다.

1. 제정취지

전반적인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제도나 시책의 지원체계로는 원활한 지원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 사업전환, 인력지원 및 시장재개발 촉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에 법인전환, 기업간합병, 중소기업자간 공동사업 및 사업전환등에 대하여 금융, 세제 및 행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연쇄도산 방지기능을 확충하고 납입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허용등 유인시책을 마련하여 공제사업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의 장당금액을 일정금액이하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내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에 대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예산과 지원수단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자가 일시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파견 사업을 일정요건하에 허용함.
-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상의 특례를 마련하고 재개발 기간동안 가설시장 장소 마련등 입점상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전기절연물 ‘안전등록제’ 도입

- 工振聽, 전기제품 안정성, 품질향상 도모 -

전기절연물에 대한 안전등록제가 도입된다. 공업진흥청은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전기절연물에 대한 안전등록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절연물 안전등록제는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절연물에 대해 안전기준을 정하고 철저한 품질확인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제품생산업체를 등록토록 해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절연물을 사용한 전기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시 절연물시험을 생략해 주는 임의제도다.

공진청은 전기절연물에 대한 안전등록제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로서 미국·캐나다·유럽 등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 제도운영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일본의 절연물 등록제도 및 운영상황을 조사·분석했다.

또 국내 절연물 가공업체 300여개 업체 중 전기절연물의 화학적재료 종류별 생산량이 많은 동양공업사 등 20개 대표업체를 선정, 주생산품의 원료·기술수준·생산량·공정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